

한국 최초의 김 양식 관련 근대 건축물, [옛 해태조합]?

우선, 해태조합이란 무엇인가?

김양식업 조합이다.

말하자면 어촌에 김양식을 주업으로 하는 수산업이 발달했고 양식업자들은 조합을 결성하여 양식업을 했다는 것이다. ‘조합’까지 결성했다면 상당한 산업임을 입증한다 하겠다. 더구나 조합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에 딸린 ‘사택’까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림 1> [옛 해태조합]이라고 전하는 건축물.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에 이 [해태조합]은 언제 생긴 것일까? 아무래도 근대 산업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김(해태(海苔))을 먹기 시작했을까? 그 해초를 왜 ‘김’이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독자들이 찾아보시길...

예로부터 전라도 해안에서는 김을 해우라고 발음했다. 해의(海衣)의 일상 발음일 것이다.

일단 전통시대의 김 양식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과 설이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근대적 김양식과 광양과의 관계를 살피기로 한다.

이에 관한 글은 [오마이뉴스]의 2004년 8월 23일의 기사(김준)에서도 볼 수 있다. 이 기사에는 ‘한국수산지(韓國水産誌)’의 기록에 나타난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책은 대한제국 융희 2년(隆熙 2年: 1908년) 12월 농상공부 수산국에서 편찬한 것으로 우리나라 3면의 어촌, 어업도시, 수산물, 수산업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이 기사에는 ‘해태 양식 기술의 보급과 관리를 위해 1911년 광포(광양시 광영동)에 ‘수산해태전습소’가, 1922년에는 망덕에 ‘광양해태조합’이 설립되기도 하였다’(출처 : [갯벌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 - 오마이뉴스](#))고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하는 망덕리의 [해태조합]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림 2 섬진강 입구, 광양만, 망덕포구의 정병욱가옥과 해태조합, 그리고 사택의 위치

한편의 일본의 기록에 의하면 일본에서도 다이쇼(大正)시대 이전에는 일본 전통적인 김 양식 방법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대개는 인위적으로 생육을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쇼와(昭和)시기(1925년 이후)에는 일본인이 한국의 수산시험장에서 쪽대(할죽)로 양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보다 한국에서 근대적 김 양식이 이루어졌음을 보이며 그 중심은 광양만이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기록은 1910년 한일병합을 전후하여 일본으로부터 일본식 양식이 도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이 기록은 ‘鄭文基著「朝鮮海苔」(1935年)’를 인용하여 1928년(쇼와3년)에 전라남도에서 일본인에 의해 양식법(부유발양식법)이 개발되고 생산량을 증산하였다고 하고 광양군의 섬진강 하구에서 양식이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록은 ‘한국 전통의 산죽과 나무가지를 이용한 자연포자 방식의 전통 김양식’에서 힌트를 얻어 광양에서는 카네코 마사노스케(金子政

之助)가, 서산에서는 후지카와 키요시(富士川きよし)가 개발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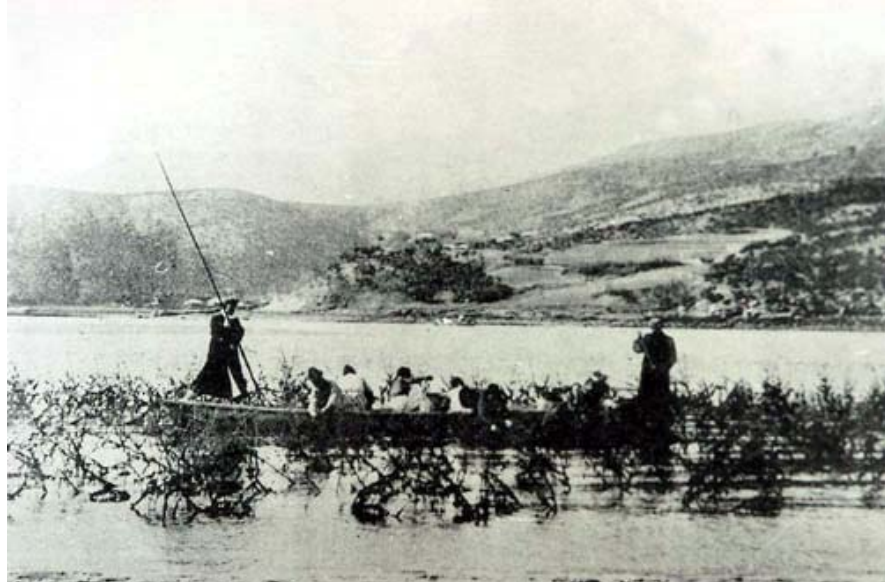


그림 3 일제강점기의 광양군의 김 양식 실습 모습(전남100년 사진자료집)

이와 같은 기록들을 종합할 때 근대 시기의 김 양식은 한국의 광양과 서산 안면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한국 김’이 유명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망덕리의 [옛 해태조합]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나 인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옛 해태조합] 건축물이 (남아있는) ‘최초의 김 양식조합 건축물’로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림 4 설양식으로 김을 생산하는 광양갯벌의 모습(동광양시 마을유래와 주민생활, 1994)

근대적인 김 양식과 그에 관련된 수산 건축물의 연구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위의 [옛 해태조합] 건축물도 상세한 조사와 그 결과를 따져 해양문화유산, 혹은

수산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 조치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1970년대 광양 어촌의 김뜨기 작업 그림 6 김을 뜬 후 한 장씩 말리기를 한다.

그리고 [옛 해태조합 사택]

[정병옥 가옥]의 인근에 <옛 해태조합>에서 사용한 ‘사택’으로 근대적 건축양식을 지닌 건축물인 [옛 해태조합 사택]이 있다. 박공부분에 고창을 내어 통풍 및 환기를 도모했고 수직의 오르내림창을 내어 근대성을 잘 타나내고 있다. 전면 좌측의 창은 목조로 아직 원형을 지니고 있으며 창틀이 돌출되고 내부에 미닫이 창호지 창이 있는 2중창을 형성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 창틀 밑에 창틀을 지탱하는 가새가 덧대어 있었다고 전한다(박춘식).



그림 7 [옛 해태조합 사택]의 정면. 좌측 창도 건립 당시의 것이다.

가옥의 좌측면에는 중앙에 네 짝 미닫이문이 덧문으로 설치되었고 평면의 중앙에 배치된 거실에 채광을 도모했다. 이 거실의 좌측에 침실을, 우측에 부엌을 배치하였다.

정면 우측에 안방에는 건립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수직의 오르내림 창이 전면과 우측에 두 짝씩 설치되어 있다. 이 안방에는 일본식 수납장(도코노마)이 안쪽 벽면에 존치되고 있다. 가옥의 후면에는 목욕실 등 부속실이 배치되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망덕 포구를 향하여 동향하고 있으며 모임지붕과 박공형 지붕이 결합된 근대적 형식이다.



그림 8 안방의 일본식 도코노마



그림 9 안방의 오르내림창이 원형대로 있다.



그림 10 이 집의 측면이지만 이쪽이 남쪽이다. 남쪽의 따뜻한 별을 받기 위하여 창을 냈다

현재 이 가옥은 공가이다. 공가로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 건축물이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1922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옛 해태조합]과 같은 시기 혹은 유사 시기라면 [옛 해태조합]과 함께 학술적 조사가 시급하다.

자세한 조사를 거쳐 [옛 해태조합]과 함께 [옛 해태조합 사택]으로 보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의 수리공사가 한창이다. 이 가옥을 중심으로 근대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광양시이다. 그렇다면 인근의 근대유산들은 좋은 ‘가족’이 된다.

그 가족 중에는 [옛 해태조합]과 [옛 해태조합 사택]이 가장 가깝다. 그 다음 ‘진월면사무소’, ‘진상역’, ‘옥곡역’, 그리고 진월면에 있는 ‘정미소’도 한 몫 할 수 있다.

그리고 광양읍에도 많다.



잘 꾸미면 뭔가 될 성 싶다.

2009. 11. 5.

김란기

(한국역사문화정책연구원)